

## The place of education in young people's lives: sample reading and responding tasks

### Task 1

고등학교 졸업을 앞 둔 학생으로서 아래의 글을 읽고 그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신문사 독자란에 보내려고 합니다. 250-300 단어 정도의 한국어로 쓰세요.

You are a student who will soon be graduating from high school. Write a letter to the editor of the newspaper in which you express your view on the following article. Write 250-300 words in Korean.

#### Text

오늘날 개인과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 경영에 있어서도 가장 중대한 이슈는 바로 경쟁력이다. 그렇다면 국가 경쟁력의 초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부 또는 기업의 경쟁력이고 이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경쟁력에서 비롯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개인의 경쟁력 평가를 무엇으로 하는가?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 평가를 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부분적으로 능력 또는 경력에 따라 개인을 평가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그 사람의 출신교를 따져 경쟁력을 평가하는 전통이 우리 사회에는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소위 학벌이 한 개인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잣대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학벌은 근본적으로 학력과 다른 개념이다. 무엇을 어떻게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 공부했느냐가 더 중요시되는 시대착오적 전통이 습관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학벌이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것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그 사람의 됴됨이, 경험 또는 능력을 평가하여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여야만 곧 진정한 경쟁력이 있는 사회라 할 수 있다. 능력보다 학벌이 더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학벌 편중의 심화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즈음 일류대학 입시에 낙방한 우리 젊은이들이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아까운 목숨을 버리는 세태도 따지고 보면 이런 학벌중시 풍조가 빚어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진정한 국가 경쟁력 함양을 위해 가능한 한 학벌보다는 능력을 우위에 두는 사회구조 건설과 함께, 이를 위한 인적자원정책을 수립, 전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 각 조직의 인력채용에 있어서도 능력우선평가에 근거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In your answer you will be assessed on how well you:**

- exchange information in response to opinions, ideas and information
- compose a well-structured argument supported by textual reference
- convey information, opinions and ideas accurately and appropriately